

EU 활기찬 노년과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 [European Year 2012] 제정 배경과 정책적 시사점

Review of the 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EY2012) and Policy Recommendations

염주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 서론

유럽의 고령화현상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조사된 바 있다. European Commission에서 출간한 2011년 보고서 The 3rd Demography Report 에서는 2060년이 되면 30%의 유럽연합 인구가 65 세 이상의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이 중에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고 하였는데, 1990년에서 2060년 사이에 80세 이상의 노인의 비중은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How to promote active ageing in Europe EU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actors, 2011).

같은 유럽이라 하더라도 지역적인 편차는 존재한다. 선진국 중 가장 빨리 고령 사회에 진입한 독일의 경우, 젊은 층의 이주가 급격하게 진행된 Gemnitz 지역에서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수인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가 70으로 나타났다. 반면 젊은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런던의 중심부는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15명이었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연합국 내의 고령화 현상 해결은 이미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자리잡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How to promote active ageing in Europe EU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actors, 2011).

유럽연합은 2012년을 ‘활기찬 노년과 세대 간 결속을 위한 해(이하 EY 2012)’로 지정하였다. EY 2012는 유럽 연합 국가 내의 고령화 현상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대중들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권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Y 2012에서 다루는 주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① 노동 시장에서 노인들의 활발한 활동 유도
- ②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
- ③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
- ④ 세대간 결속력 강화.

EY 2012의 부제는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Everyone has a role to play!]’로 어

는 세대에 속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령화 문제 해결과 세대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해 할 일이 있음을 강조한다. 즉, EY 2012에서는 고령화를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정하고 이 안에서 고령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찾고자 한다. 일례로 현세대 노인들은 과거에 비해 건강한 노인들이라는 점을 들어 이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됨을 주장하였다(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2012, 보도 자료, 2012년 1월 18일).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노인들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과 에너지를 쓸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였다. 즉 이들을 젊은 세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시민, 자원봉사자, 임금 근로자,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EY 2012에서 이루고자 하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노인은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라는 기존의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How to promote active ageing in Europe EU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actors, 2011).

EY 2012는 크게 활기찬 노년에 대한 부분과 세대 간 결속력 강화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EY 2012에 나타난 용어를 다루기로 한다. “활기찬 노년이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2012 안내 브로슈어, 2011년 12월). 이는 세계보건기

구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따른 것이다. 또한 EY 2012에서는 세대 간 결속력이란 “나이 구분 없이 사회구성원 모두가 그들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 세대 간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지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2012 안내 브로슈어, 2011년 12월). 본 원고에서는 EY 2012의 제정 배경과 관련 내용을 번역 및 요약하여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EY 2012의 제정 배경

EY 2012에 대한 법적 근거는 Decision No. 940/2011/EU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1년 9월 14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와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에서 EY 2012에 대한 결정을 통과시키며 이에 대한 제정 배경과 관련 정보를 기술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는 고령화에 대한 관심 증대로 여러 가지 관련 보고서가 출간되고 정책들이 고려되었다. 2010년도에 들어서서 2002년 발표된 유엔의 고령화 대책 국제 계획이 10주년이 되는 2012년에 EY 2012를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앞서 EY 2010과 EY 2011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기 위한 해’와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촉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해’이었으므로, EY 2012는 이전에 있었던 2010년과 2011년의 업적을 이어받아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었다. EY 2012에 대한 자세한 제정 배경은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재는 50여개 이상의 참여기관들이 협력관계를 맺으며 EY 2012의 취지에 동감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은, 사립재단,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권익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참여 기관 중 일부를 <표 2>에 포함하였다.

표 1. EY 2012 제정 배경

구분	내용
2002년	UN의 고령화 대책 국제 계획(MIPAA)이 세워짐.
2006년	EU Commission은 ‘유럽의 인구학적 미래: 위기부터 기회까지’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내놓음.
2007년	EU Commission은 ‘세대 간 결속력을 강화하기’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내놓음.
2009년	EU Council은 활동적이고 존엄한 고령을 위해 남녀간에 공정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2009년	EU Council은 건강하고 존엄한 고령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포함함.
2010년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퇴치하기 위한 해[EY2010].
2010년	EY 2012를 제정, 준비하기로 결정
2011년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촉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해[EY2011].
2012년	MIPAA 10주년을 맞이하여 EU에서는 “활기찬 노년과 세대간 결속을 위한 해”로 지정함 [EY2012].
	1월 18일 European Commission과 Danish Presidency of the EU 주관으로 코펜하겐에서 EY 2012 관련 학회 개최함.
	현재 유럽 내 다양한 관련 기구들이 협력하고 있음.

자료: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Decisions, Decision No 940/2011/EU 23.9.2011 L 246/5-10 및 EY 2012 브로슈어.

표 2. EY 2012 에 참가하는 협력 단체 예시(알파벳 순)

구분	이름
리드 에이전시	AGE Platform Europe(구심점 역할을 함)
참가 단체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Elderly(RoE)
참가 단체	European Civil Society Platform on Lifelong Learning(EUCIS-LLL)
참가 단체	European Federation of Retired and Older Persons(FERPA)
참가 단체	European Non-Governmental Sports Organization(ENGSO)
참가 단체	European Volunteer Centre(CEV)
참가 단체	HelpAge International
참가 단체	Red Cross EU Office

자료출처: <http://tinyurl.com/cnubevn>.

3. EY 2012의 주요 내용

EY 2012가 제시한 고령화 대응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노인들이 직업에서 일찍 은퇴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고용부분에서 선행되어야 할 점들을 설명한다. 유럽 전역에 걸쳐 기대수명은 길어지고 있고, 연금 수령 연령은 높아졌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지금 현재와 앞으로 연금이 나와서 은퇴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일자리가 없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2012 안내 브로슈어, 2011년 12월). EY 2012는 고령자들도 임금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둘째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발히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으로 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셋째는 노인들이 나이가 들수록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이들이 독립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점을 제시한다. EY 2012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쇠퇴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으나, 이 퇴보를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노인들이 처한 환경에서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나,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점 등이 이러한 고민의 대상이라고 보았다. 이와 동시에 활기찬 노년이란 어떠한 서비스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는 과

정 중에도 스스로를 독려하여 가능한 오래도록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European Year for Active Ageing and Solidarity between Generations 2012 안내 브로슈어, 2011년 12월).

1) 활기찬 노년 생활 준비를 위해 고용 부분에서 선행되어야 할 점

EY 2012에서는 활기찬 노년생활 준비를 위해 고용 부분에서 선행되어야 할 점들을 다음의 다섯 가지 영역에서 제시하였다.

-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 연령 차별 퇴치
- 의사 소통 연락망 구축
- 정책적 개선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0세 이상 근로자들을 위한 보다 나은 근무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점진적인 은퇴 방법 고민 및, 파트타임 근무, 근무유연제 도입을 추천하였다. 또한 장애인, 정신건강 질환자 등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노동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노인 고용인이 돌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지에서 배려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점진적인 은퇴계획을 권장하며 완전히 은퇴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 등을 활용하여 일을 점차 줄이게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동시에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남녀 간 성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을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연령차별 퇴치 면에서는 고용에 있어서 연령에 근거한 차별이 없도록 법적인 제도 확립을 촉구하고, 노인 근로자들의 사회적 공헌과 높은 생산성을 알려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민자 노인들과 소수민족 노인들은 일반 노인들보다 더 많은 차별을 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연락망 구축에서는 노인들이 정보통신망 관련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노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도 있다고 하였다.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고용부분의 제반여건 개선으로 정책 전반에 걸쳐 거론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고령이어도 오래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의 의사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연금관련 규제, 노동법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연금을 수령할 권리, 고용 지원의 필요성과,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비공식적 보호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함도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된 예로 유급휴가 제공 방안을 거론하였다. 또한 남녀 노인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 방안으로 여성 노인들은 직장에서의 근무 햇수가 짧고 이는 연금에서 금전적인 보상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남으로 이런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 구직자들이 할 수 있는 직종을 남자 노인 구직자용, 여자 노인 구직자용과 같이 더 세분화하여 일자리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에서 논의된 것처럼 EY 2012에서는 노인 고용 확대가 활기찬 노년기를 유지하는데 직접

적인 연관이 있음을 기본 전제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고용주 및 협동조합에서 노력할 부분도 제안하였다. 조직의 특성에 맞게 활기찬 노년을 위해서 고용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역할은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지역사회 내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며 세대 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들

직장에서 은퇴한다고 하여 바로 노인들의 생활이 무료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못하다. 이때 노인들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으며, 은퇴 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EY 2012에서는 노인들이 이미 가정 내에서 보호자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은 간과되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 세대 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요구한 점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뉜다.

- 사회적 배제를 완화시킴
- 시민들 간의 대화를 유도함
- 세대 간의 유대를 키워가기
- 접근성을 개선함
- 빈곤에 대처함

사회적 배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각종 기관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을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때 노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이용 가능한 정보수단을 활용해 자료 제공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시민들 간의 대화를 유도 하기위해

표 3. 활기찬 노년생활 준비를 위해 고용 부분에서 요구되는 각 기관의 역할

구분	역할
비영리 단체	- 노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협동조합, 기능조합등과 연계를 함 - 노인들이 그들의 풍부한 인생 경험을 이용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교육하고 조언을 제시하기 - 세대를 아우르는 특색 있는 지역 사회 프로그램들을 발굴, 소개
연구자 및 대학	- 노인 근로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심층 연구를 진행하기 - 노인들이 어떤 형태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 훈련들에 참가하는지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 실시
고용주	- 연령차별이 없는 근무환경 조성 - 공평한 임금체계 확립 - 위험 요소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며 그 환경이 고령 근로자들에게 맞는 지 점검하기 - 가족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노인 근로자에 대한 배려 필요 - 유연, 탄력 근무제 도입 - 50세 이상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를 뽑아 의견을 반영
협동조합/기능조합	- 고용 기관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노인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수집, 배포하기 - 비영리기관과 연계하여 노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막도록 이슈화 함

자료 출처: EY 2012 브로슈어

서는 노인 당사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 밖에 세대 간의 유대를 키워가기 위한 방법으로 멘토링, 지도 등 노인들이 젊은 세대와 함께 공감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각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접근성 개선의 문제에서는 주거, 교통 부문에서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빈곤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 첫째, 최저 연금 수령액을 합당한 수준에서 책정하여 노인들이 빈곤해 지는 것을 예방한다. 둘째, 일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빈곤

한 노년층을 위해 고용주들이 윤리의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초고령 여성노인, 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고령노인, 소수 민족, 이민자, 자영업 노인 등은 빈곤에 처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사회 내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며 세대 간 결속 강화를 위해 EY 2012에서 제시하는 정책적인 개선점은 연금수당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대책과 장애인, 노인 등을 차별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

마련을 끝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단체, 연구자 및 대학, 고용주가 담당해야 할 역할들을 요약한 내용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3)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며 세대 간 결속 강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점들

EY 2012에서는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며 세대 간 결속 강화를 위해 정책적인 면에서 개할 점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논하였다.

- 국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지도록 교육 투자를 함
- 건강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
-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독려함
- 추후 보건의료 정책에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둠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교육 투자는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친 전반적인

개선책을 말한다. 즉 정신건강, 장애, 질병 예방과 만성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가리킨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신체적 활동과, 사회적, 정신적 활동에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건강 관련 투자의 한 가지 방식이 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건강한 식단 유지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건강 불균형 완화 측면에서는 접근성문제를 거론하였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사회구성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과 건강 관련 자문, 예방의학 서비스에 대해서 문턱을 낮추는 문제, 의료적 치료와 장기요양 시설의 질을 높이는 문제도 건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개선 할 점으로 꼽았다.

노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집이나 시설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인 면에

표 4. 지역사회 내에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며 세대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

구분	역할
비영리 단체	- 여러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노인들이 인터넷을 통한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이민자 노인, 소수민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할 수 있는 접근 방식들을 지지하기
연구자 및 대학	- 노인 자원봉사자들과, 비공식적으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환산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음 -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협동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벽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고용주	- 노인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하기 - 비영리단체들과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노인들의 욕구 파악에 나서기 - 노인 근로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근로자로서의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지 연구해 보기

자료 출처: EY 2012 브로슈어

서 노인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돌봄의 종류도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 지역 중심, 일시적 단기보호, 요양보호 등 다양하고 유연한 종류들을 발굴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임금 수준, 연금에 가입할 권리, 근무 환경 등 전반적인 면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을 논하였다.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새로 개발되는 구역에서 주거 및 교통 서비스가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적합하며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방법과, 집에서도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서비스를 구조화 하는 방법을 들었다.

노인들이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며 세대 간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시한 정책적 안으로는 EU에서 제시하는 다른 영역의 정책들과 고령화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후 보건의료 정책에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독립적인 노년기를 위해서 사회 각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표 5>에서 기술하였다.

4. EY 2012 취지를 잘 살린 프로그램 예시

유럽 연합은 EY 2012와 맞물려서 EY 2012의

표 5.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며 세대간 결속 강화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

구분	역할
비영리 단체	- 병으로 인해 집에서 외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들을 시행.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 제안 - 세대간에 협동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많이 개발하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 건강한 생활습관들을 독려함
연구자 및 대학	- 노인학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하기 - 간호학 과정에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기 사용 등에 대하여 가르치기
기업 (고용주)	- 유럽시장 내에 노인 인구가 점점 더 확대될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시장변화 예측 - 노인들에 맞는 약물, 의료 기기 등을 개발하고 테스트하기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 보건서비스와 사회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를 확보 - 노인들의 집, 사회환경 등이 안전한지 종합적인 점검 프로그램 제공 - 사회복지사 훈련을 통해 노인 내담자의 경우 정신 건강상태를 특별히 신경 쓰도록 지도 - 담당 전문가들을 교육시킬 때 노인들을 직접 훈련지도에 참여하게 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여봄

자료 출처: EY 2012 브로슈어

목적과 방향을 잘 살린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사회의 각 분야에서 취합된 우수 사례들은 활기찬 노년 및 세대 간 결속강화를 위해 수행된 과제들로서 이들을 살펴보는 것은 여러모로 활용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소개된 사례들은 How to promote active ageing in Europe EU support to local and regional actors, 2011에서 발췌하였다.

1) 고령 노령자들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유지 보완하는 프로그램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욕구에 맞추어 고령 노동자들의 기술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들은 유럽의 평생 교육 시스템 및 직업 교육 제도와 맞물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들의 창업을 위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짜기도 한다. PEOPLE (Pan European Older People's Learning and Employment Network)은 유럽 연합 국가 내에서 고용과 관련된 우수 사례들을 수집하고 파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노인 근로자들을 모집하는 것 뿐 만아니라 이들을 근속하게 하기위한 도움을 고용주에게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¹⁾

2) 고령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고령 근로자들이 접하는 어려움은 구직, 기술

향상의 요구 등 구체적인 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PAL(Extending Professional Active Life)는 고령 근로자들이 가진 재능과 기여도, 유럽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노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²⁾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한 사례

노인들의 자원봉사활동은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EU는 평생교육 프로그램(European Lifelong Learning Programme) 하에 노인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예산을 배분한 바 있다. The Voice of European Seniors는 루마니아와 포르투갈 사이에 정보 교환 프로그램으로 양국의 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례와 경험, 자원봉사로 인한 노인들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하여 자세히 교류한다.³⁾

4)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증진시킨 사례

유럽 내 전반에 걸친 소셜 미디어 사용과 관련하여 몇몇 기관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노인들을 포함한, 노인들에게 파급이 되는 소셜 미디어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Go-myLife(Going

1) <http://www.europeanpeoplenetwork.eu>

2) <http://www.epal.eu.com>

3) <http://projectotio.wordpress.com/give>

Online: my social life)는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소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가족, 동료들 간에 교류 확대를 권장하였다. 또한 지역적 특색에 맞는 정보를 많이 공유하여 집 밖에서의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⁴⁾

5) 노인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사례

활기찬 노년의 또 다른 면은 의존도의 완화라고 볼 수 있다. 노인들이 공적, 사적인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돌보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강, 재정 등 모든 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ICT for Health는 헬스케어 관련 기술에서 혁신적인 내용들을 교환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노년기 구성에 공헌하고자 한다. 건강을 잃게 되어 독립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줄도록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모니터 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였다.⁵⁾

6) 세대간 교육 강화를 위한 사례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은 기술과 경험을 다른 세대로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만하다. 이 때 기술과 경험만 이전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관계를 쌓고 상호간의 이해를 깊이하게 되는 순기능도 가지게 된다. LET'S (Let Seniors Teach Entrepreneurship Through Innovative

Storytelling Approaches)는 은퇴한 노인 사업가들이 이들의 기술 및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자 하는 데 있어 적절한 상대를 찾아준다. 이때 젊은 세대는 경제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불우한 사람들로 은퇴한 노년 사업가들의 아이디어와 위험관리 전략 등을 소개받을 기회를 가진다.⁶⁾

5.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

지금까지 EY 2012 관련 자료를 통해 유럽 연합에서 바라보는 활기찬 노년과 세대 간 결속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첫째, EY 2012에서 노년기, 노인을 지칭할 때는 사실상 50세 이상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초고령 노인, 고령노인을 위한 사회 대응책과는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EY 2012에서는 노인을 도움을 받을 대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보다 아직도 근로능력이 있고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는 주체로 보고 이들의 독립성과 노동능력을 지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EY 2012 자료를 보면 근로 면에서의 대응책, 지역사회 내에서의 대응책, 독립적인 생활 확보를 위한 대응책 중, 근로 면에서의 대응책이 가장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는 EY 2012가 다양한 사회적 제도 장치 확충을 촉구

4) <http://www.gomylife-project.eu>

5) <http://www.ictforhealth.net>

6) <http://www.letsenterprise.eu>

하는 가운데서도 노인들의 일자리 확보를 핵심 현안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EY 2012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돌봄 역할을 주시하였다. 여성노인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을 돌보고 간호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EY 2012는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의 공로를 무형으로만이 아닌 유형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연금 혜택에서 가정구성원 돌봄의 시간들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다.

넷째, EY 2012 제목에서 세대 간 갈등, 세대 간 격차, 또는 세대 간 불화해소가 아닌 세대 간 결속이라 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 결속 또는 화합은 갈등해소보다 더 적극적인 방

식이라 볼 수 있다. 즉 현재 존재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탐색한 후 나아가 앞으로는 어떻게 세대 간 결속력을 강화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EY 2012의 부제 ‘모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화 문제는 노인 당사자만의 문제 혹은 정책입안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할 일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령화는 노인, 중장년, 청년, 아동, 청소년과 같은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남성, 여성, 이민자, 소수민족 등 다양한 집단들을 포함하며 모두에게 해당 되는 사회적 현상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정책적인 역할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정부, 비영리 단체, 기업, 대학, 유럽의 각국 등 모두가 활기찬 노년, 세대 간 결속력 강화에 역할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문
복사